

자신을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정리하라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동국대 명예교수 편역)

24. 의식의 자기의 문제 ㉔

대승불교에 있어서 심층의식의 추구
아알라야(alaya)라는 용어는, 이러한 의식(意識)의 자기 당체(當體)를 가르치기 위해서 대승불교의 사상가들이 말한 것이다. 이 용어는 벌써 근본불교의 경전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 어휘는 무슨 특정한 용어적(用語的)인 쓰임새는 아니었으며 다만 막연하게 욕망 또는 탐욕을 가리키는데 불과하였다.

이 말이 얼마 후에는 엄밀한 용어(用語)로서 규정되어 대승불교의 심리학적 측면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어휘가 되었다. 그 경과(經過)의 자취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러한 의식의 자기에 대한 근본불교와 대승불교의 관심이 경중(輕重)의 차이를 잘 알 수 있다. 근본불교에 있어 아알라야란 말이 쓰여진 용법의 한 예를 들면 유명한 ‘범천권정(梵天勸請)’의 한 구절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그때 붓다는 자기의 깨달음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설교할 것인가 혹은 하지 않을 것인가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 그 결론은 차츰 부정의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그 붓다의 생각을 옛 경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내가 증득한 이 법은 매우 깊고 깊으며 난견(難見) 난해(難解)하고 미묘하며 사념(思念)의 영역(領域)을 초월하며 뛰어난 지자(智者)만이 능히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생(衆生)은 아알라야를 즐기며 아알라야를 기뻐한다. 아알라야에 충추는 중생에게 있어서 이 연기(緣起)의 이치(理致)는 난견(難見)이며 이 열반(涅槃)의 이치(理致)는 난견(難見)이다. 만일 내가 이 법을 설명한다 하여도 사람들은 이해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헛되게 피로하고 곤혹할 뿐이리라.”

거기에서 붓다는 여러 번 아알라야란 말을 쓰고 있다. 아알라야를 즐거워하며 아알라야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다.

붓다가 여기에서 가리키고 있는 것을 결국은 대승불교의 사상가도 같은 말로써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 양자(兩者)의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붓다에 있어서 그 말의 가리키는 것은 매우 막연하게 욕망 또는 마음속에 있는 방해자를 뜻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아알라야에 대해서 번역어를 선택한다면 오욕(五欲)이나 쾌락(快樂) 번뇌(煩惱) 같은 뜻이 될 것이다.

이것과는 반대로 대승불교의 사상가들

이 같은 아알라야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 내용은 훨씬 엄밀하게 규정된 것이며 학문적인 용어로서 확립되어 있다. 그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하나하나 언급할 입장이 아니며, 또 학파에 따라서 그 해석에 여러 가지의 차이가 있지만 유식학파(唯識學派)에 관해서 그 대승의 윤곽을 언급해 본다.

먼저 이것은 모든 식(識)의 근거(根基)로서 팔식(八識)의 여덟 번째에 두는 것이다. 감각도 의식도 자아(自我)의 사랑(思量)도 모두 이것에 의해서 있는 것이다. 초목은 때가 되면 썩어 트며 잎이 자라며 꽃이 피며 열매를 맺는다. 사람은 흔히 그 땅위의 일에만 마음을 쏟는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여 보면 그러한 일이 성립하는 것은 지적하여 아알라야는 또 집장(執藏)이라고도 불려진다.

이렇게 하여 아알라야의 내용과 그 작용은 대승불교의 사상가에 의해서 차츰 추구되었으며 세밀하게 규정되어 갔다. 그 작용은 아마 의식하(意識下)의 자기에 대한 가장 빠른 시대의 학적(學的)인 추구인 동시에, 또 오늘날에도 역시 중요한 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대승불교가 얼마나 의식의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였는가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의식의 자기의 문제와 종교적 실천
이것은 요컨대 근본불교와 대승불교의 입장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인간의 자기 형성에 있어서, 의식상(意識上)의 문제를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느냐 의식하(意識下)의 자기의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느냐, 그러한 관심의 초점을 두는 곳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의식하의 자기의 문제에 관심의 초점을 둔 대승불교의 사상가들은 물론 이 문제를 이론적으로만 추구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은 그 종교적 실천의 면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2004년 해인사 수련회 모습. 불교의 수행은 의식하에서 자기를 파악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폭넓게 대승불교의 종교적 실천을 주시해보면 거기에는 많은 비합리적(非合理的)인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진언비밀(眞言秘密)의 행법(行法)이 그렇고 정토문(淨土門)의 칭명염불(稱名念佛)도 또한 그렇다. 선종(禪宗)에 있어서 지관타좌(只管打坐)의 방법에도 그러한 요소가 엮여 있다. 그러한 것들은 붓다에 의해서 제시된 ‘성스러운 팔지(八支)의 길’ 그 외의 여러 가지 실천 덕목(德目)이 딱 청순(淸純)하고 합리적인 요소가 혼합(夾雜)되어 불순(不純)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때로는 있다. 석존에 의해서 배척된 옛 시대의 미망(迷妄)이 다시 살아나서 불교를 타락하게 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점도 있다. 그리고 사실 그러한 것은 조금만 더 왜곡(歪曲)되면 불교를 타락으로 이끌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붓다의 길이 본래 가리키는 것은 결코 그러한 불순타락의 길이 아니며 도리어 더 깊은 고에 있는 자기 형성을 도모하

는 것이었다.

내 가슴의 바닥의 바닥에는, 자기가 전혀 모르는 자기가 숨어 있다. 이 의식의 자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정확하게 파악하며 합리적으로 정리하여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불교는 이제 다시 한 번 비합리적인 요소를 제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문제를 깊이 파고 들어갔을 때 불교의 실천은 또 다시 새롭게 원시적(原始的)인 방법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후세의 종의(宗義) 중승(宗乘)을 토론하는 자들이 무엇이 의해서 배척된 옛 시대의 미망(迷妄)이 다시 살아나서 불교를 타락하게 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점도 있다. 그리고 사실 그러한 것은 조금만 더 왜곡(歪曲)되면 불교를 타락으로 이끌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붓다의 길이 본래 가리키는 것은 결코 그러한 불순타락의 길이 아니며 도리어 더 깊은 고에 있는 자기 형성을 도모하



행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질보다 斤으로

중국에서 7년쯤 머문 일이 있다. 북경에서 중국어 하나, 둘, 셋, 넷을 배워 익혔고, 운남의 곤명에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을 활용하며 절반의 중국인이 되어 있었다.

운남(雲南) 지방은 중국에서 소수 민족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곳이다. 하여 나는 주머니 사정에 따라 이곳저곳을 찾아 여행을 꽤나 즐기는 나그네 삶을 꾸려왔다.

당시에 본 재래시장의 스케치 몇 폭을 옮겨 보겠다. 한국에서도 더러는 만날 수도 있는 풍경이지만, 닭을 파는 시장에 가 보면 모든 닭의 모가지 부분이 주먹만 하게 부풀어 있음을 보게 된다. 강낭콩을 물에 담가 닭의 부리를 열고 억지로 불린 강낭콩을 밀어 쑤서 넣었기 때문이다. 닭의 무게를 더하기 위한 상술이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물 먹인 소가 있었던가.

다음으로 옮길 삽화는 송이버섯에 대해서다. 나무젓가락을 역시 물에 부풀린 다음 송이버섯의 곰팡이 부분에 쑤서

는 신문 기사이다. ‘중국차(茶)는 농약차’ 라는 그릇된 이미지(Image)를 쉽게 벗어나길 바랄 뿐이다. 중국이나 한국이나 눈속임, 약력 상술은 어디에나 있을 테니까.

중국 또한 날로 변화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루속히 근(斤)보다는 질(質)쪽으로 기울길 바랄 뿐이다. 건강식품이 건강을 해치는 경우는 비단 중국 문제만이 아닐 테니까.

두 사람의 꿈 이야기
중국의 고전에서(古典)에서 건져 낸 짙막한 이야기 하나 해야겠다. 윤 부자라는 사람이 있었다. 자린고비처럼 아끼고, 소금처럼 짠, 인색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밤마다 꿈을 꾸게 되는데 낮과는 판판의 삶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하인이 되어 주인의 눈치를 살핀다. 늘 배고파 땀물로 주린 배를 채우기도 한다. 온몸에는 벼룩과 빈대가 득실거린다. 주인은 틈과 찜도 없이 버럭 화를 내고 매질을 즐기는 포악도이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모두 적이요, 배신의 무

모든 것은 ‘양보다 질’이 우선돼야 우리는 꿈 속을 헤매는 존재일 뿐

는 것이었다. 이 또한 송이버섯의 무게를 더하기 위해서다.

다음은 고춧가루에 횡가루를 뿌리고 횡가루를 섞어 넣는, 용서받지 못할 행위에 대해서다. 그들에서 있어 질(質)은 문제될 게 없다. 오로지 무게를 더해 머니(Money)만 챙기면 그만이었다.

‘보이차’에 대해서도 한 마디 해야겠다. 속성차(茶)인 보이차는 보이현(普洱縣)의 지명(地名)에서 따온 명칭이다. 보이현의 차밭에 가 보게 되면 우선 놀랄 일이다. 농약을 하얗게 뒤집어 쓴 채 찾았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먹는 차밭은 따로 있었다. 당연히 무슨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다.

서양인들이 한국에 와서 젓갈 담그는 모습을 보고 미개인이라며 놀랐지만 보이차 만드는 과정 또한 놀랄 일의 연속이었다. 위생관념, 환경관념, 오물 등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속성차(茶)가 아닌 퇴비 만드는 그 자체였다.

물론 현대식 제차(製茶) 시설을 갖춘 공장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농약을 여러 차례 하얗게 뒤집어쓰고 자란 것인데 대해서는 그들 또한 피하고 있었으니까.

‘젓갈에서 구더기’는 한국에서 만나

리들이다. 탐 지린 웃은 같기같이 헤어져 땀물과 한 몸 된지 오래이다. 하루라도 좋으니 이런 지옥 생활을 벗어나 파랑새처럼 날고 싶다.

윤 부자 집에는 늙은 몸종이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몸종으로 낙인찍힌 하인 팔자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런데 이 노인은 밤만 되면 즐겁기 그지없다. 꿈속에서 매일 밤 부잣집 주인으로 바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걱정과 근심거리가 없으니 마음도 몸도 편안하다. 이 노인에게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나팔레옹처럼 불가능이 그의 인생사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진나라의 시황제가 부러워했을 정도니까.

장자(莊子)는 꿈에 나비가 되어 날아다녔다. 꿈을 깬 후 나비의 꿈에 사람이 되어 있는지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이 광수는 ‘꿈’에서 평하고 울리는 경쇠 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해, 평하고 사라지는 경쇠 소리로 이야기를 마무리 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을 말해보라. 밤과 낮은 반반인데 윤 부자가 행복한가, 하인 노인이 행복한가. 우리를 또한 꿈속에서 헤매는 존재들인데.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기반방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블루인이라면 누구나 기반
나만의 완성세계 기반
기반은 상급과 만능, 다양한 모양과 사용처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
기반은 다양한 모양과 사용처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

www.hyunbulshop.com

상쾌하고 시원한 비눗바람을 실내 공간으로~
Electric Fan
14인치 리모컨식 선풍기 MF-1414SR

My friend MF30-12T 14 박스팬 선풍기
특별제는 해당날은, 모든 회원에게 마이프렌드 선풍기와 함께 시원한 여름을~

국내 유일 14인치 마이프렌드 박스팬 선풍기!
마이프렌드 정품 32,000원

무료배송, 정품확인 완료
73,000원

선풍기 무료배송
당일배송 및 안전배송
마이프렌드 정품인증 완료

박스팬 선풍기 32,000원
스탠드 선풍기(리모컨포함) 73,000원
터보팬 선풍기 84,000원

강력한 터보팬동작, 무료배송
84,000원

입금계좌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문의전화 02)879-2007